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64/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수능특강 인문·예술 06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손가락이 베여서 아플 때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느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직접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베여서 아파할 때는 내가 아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지는 못한다. ㉠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그의 손가락의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의 사실에서 그의 고통을 추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실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곧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고도의 정교한 로봇이나 좀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앎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인식적 회의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 추론이 정당화되느냐는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유비 논증으로 가장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유비 논증은 만일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 첫 번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 추가적인 특성을 두 번째 대상도 가지고 있으리라 추론하는 논증이다. 다른 사람은 많은 중요한 측면에서 나와 닮았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기에 신체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도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리라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비 논증은 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연성도 약하다. ㉤ 성공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한데 이 유비 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 곧 나 자신의 경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을 열어 보고 책이 들어 있음을 확인한 후 나머지 상자들도 똑같이 생겼으니 모두 책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 매우 빈약한 논증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유비 논증도 이와 같다. 지금까지 해가 떠왔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귀납 추론은 ㉦ 수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귀납의 문제'라고 한다. 즉 아무리 많은 증거가 제시 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의 관찰 증거

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 유비 논증이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은 흔들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마찬가지로 회의론인 인식적 회의론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의심한다. 인식적 회의론자들이 오로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뿐이다. 이것을 '유아론(唯我論)'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란 걸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손쉽게 해결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걸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겼는데, 행동이 곧 마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는 그리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정신 활동을 걸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을 견지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철학자들이 많다. 현대 신경 과학의 발달로 복잡한 정신 현상이 뇌를 비롯한 신체의 작용과 동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1.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ㄴ.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
 ㄷ.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ㄹ.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 작용으로 알 수 있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
- ② 행동주의자이면서 유아론자일 수 없다.
- ③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행동주의자와 동일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	㉡	㉢
①	마음	나	신체나 행동
②	신체나 행동	나	마음
③	신체나 행동	다른 사람	마음
④	마음	다른 사람 신체나	행동
⑤	마음	다른 사람	나

4. ㉠~㉣의 예를 든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찌푸려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 ② ㉡: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독서 모임 회원들은 차분한 성격이었으므로 오늘 만난 독서 모임회원도 차분한 성격이라 예측한다.
- ③ ㉢: 휴대 전화 한 대를 분해해 보고 같은 모델의 다른 휴대 전화도 구조가 똑같으리라 예측한다.
- ④ ㉣: 바다에서 조개를 많이 잡았는데 그중 하나에 진주가 들어 있으니 다른 조개들에도 진주가 들어 있으리라 예측한다.
- ⑤ ㉣: 아프다는 것은 손가락에서 피가 나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다.

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좀비는 겉으로 보기에다 시체처럼 창백하고 무기력하며 맞아도 전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사람과 쉽게 구분이 된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닌 사람과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이다. 이를 ‘철학적 좀비’라고 부른다.

- ① 행동주의자는 좀비가 아닌 사람도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
- ②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 ③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
- ④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것이 곧 철학적 좀비이겠군.
- ⑤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 하려는 유비 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군.